

깨달음과 미망세계 잇는 이중적 공간예술

해인사 국사단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건축학)



가람의 장면들

2

안도 밖도 아닌 경계에 세워 고리 상층 건물 절묘히 해결

불리한 지형 슬기롭게 활용

가람은 그 바다 가운데 고요한 섬과 같고, 또는 한송이 연꽃과도 같다. 화엄의 세계, 연화장 세계가 바로 이를 말함이 아닌가.

그만큼 해인사의 건축은 불리한 자연 지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이 점이 해인사의 가장 뛰어난 건축적 가치다. 다시 말해 해인사를 해인사답게 만든 것은 땅의 모습을 이용한 탁월한 지혜였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일주문의 기다란 진입로부터 일주문-봉황문-해탈문-구광루 등 여러 단계의 입구들을 지나면서 만나는 외의 장면들은 모두 특별한 방법으로 땅을 이용하

면서 생겨난 모습들이다.

그 가운데 봉황문과 해탈문 사이의 공간에서 발길을 멈추자. 이곳은 단순히 본다면 봉황문에서 위의 해탈문으로 가기 위한 계단들로 가득한 통과 장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국사단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작은 건물이 앉아 있다. 아래 봉황문은 동쪽에 있고, 위의 해탈문은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계단도 서쪽으로 꺾어져 있다. 국사단은 동쪽의 반쯤에 자리잡았다. 따라서 봉황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의 국사단이 마치 정면에 있는 것같이 보이고,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는 계단 위로 기다란 해탈



○해인사 봉황문과 해탈문의 사이에 위치한 국사단은 미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이어주는 이중적인 경계의 공간이다.

문이 균형을 이룬다. 이 하나의 공간적 장면은 고적미학에서 말하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균형과 조화, 정적과 역동성, 비대칭적 대칭성 등.

미학적 수사보다도 흥미를 끄는 것은 국사단의 위치와 성격이다. 가야산에는 산신이 있고 해인사 가람 터에는 이터의 형국(形局)을 주관하는 토지신이 있다. 국사단(國司壇)이란 이 토지신을 위해 마련한 건물이다. 가람을 수호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물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사단안은 불교의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국 전래의 토속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건물의 명칭도 전(殿)이나 각(閣)이 아니

라 단(壇)이다. 이 건물은 도저히 불교의 성스러운 가람 안에 볼 수 없는 건물이다. 그러나 가람건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무시할 수도 없다.

널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성격의 건물을 봉황문과 해탈문의 사이, 본격적인 불국토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경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절묘한 해법을 개발했다.

교리적으로 사천왕상이 있는 봉황문은 아직 신중(神衆)들의 미망의 세계이고, 해탈문 이상이 깨달음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불국토인 연화장 세계는 해탈문부터 할 수 있지만 봉황문부터 이

미 가람은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이는 가람의 내부일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는 공간적 경계다. 국사단이 위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위치다.

봉황문을 들어서면 국사단의 정면은 뚜렷하게 부각되어 다가온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왼쪽 위로 계단이 이어지면 그 위의 해탈문이 맡고 있어 서 있다. 어서 올라오라고 권하는 자세로.

국사단은 중요한 건물이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건물이기도 하다. 봉황문과 해탈문 사이의 이 공간은 국사단의 이중적 성격을 대변하듯 지형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중적인 경계의 공간이다.

팔 반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어서 법보사찰로 승양받고, 최근 입멸한 성철스님의 사리탑으로도 유명한 해인사는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없다. 유구한 역사와 유명도에 더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되었으니 금상첨화적이다.

국내 사찰로 문화유산이 되기에는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뿐이냐 한국의 사찰건축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경관을 500년 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경관전의 과학적 설계나 그 앞의 기다란 마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이 우리 건축이 성취한 위대한 결실이다.

(화엄경)에는 '해인삼매(海印三昧)'라는 말이 나온다. 풍량이 일면 바다가 잠잠해지면 삼라만상이 모두 바닷물에 비치는 것 같이 온갖 변화가 끊어진 고요한 상태를 일컫는다. 해인사를 건축했던 이들은 이러한 삼매의 장소를 만들려고 했다. 해인사 앞 산에 올라 가람을 쳐다보면 함준한 가야산 속에 밝고 고요한 터에 해인사가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가야산의 울창한 수풀은 풍량이 이는 바다와 같고 해인사의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수 합장

■ 전화: 0357) 531-8736 ■ 팩스: 0357) 531-5549
■ 호출: 012) 321-6044 ■ 핸드폰: 011) 284-5101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보관, 환경을 생각하는 연등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연등을 삼보전에 올립니다 -

북쪽 장엄 팔각등



연등 납품시



장엄팔각등이 좋은 이유 10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1. 운반, 사용, 보관이 간편합니다.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한 번의 공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조립30초) 필요하신 모든 곳에 바로 설치할 수 있게 제작 되었습니다.사용후 연등을 분해(분해시간10초) 하시면 절친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됩니다.
2. 색상이 선명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고전적 단형 문양을 첨가한 장엄 팔각등은 완벽한 인쇄 처리를 통하여 기존등과는 차별되는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색이 없어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세척하면 새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사용이 오래 된 경우 분해하여 세척한 후 조립하면 새 것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간이 길습니다. 분해 조립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장소 기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어 사용기간이 길어집니다. (4-5년)
5.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 등입니다. PP로 제작하여 재활용이 되므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오랜 사용으로 파손된 경우 분해하여 모아두면 응급후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주변환경에 전혀 부담을 주지않습니다.
6. 눈, 비, 거센 바람에도 파손 변형되지 않습니다.
7. 야간 점등후의 모습은 더욱 화려합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8. 평상시 사찰 장엄등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9. 별도 인내가 가능합니다. 500등 이상 주문 시 사찰명을 인쇄해 드립니다. 3천등 주문 시 원하시는 디자인을 제작해 드립니다.
10. 디자인 변경이 용이합니다. 3천등 이상 주문 시 원하시는 디자인을 제작해 드립니다.

만다라 장엄 팔각등



연등 보관시



함식편으로 제작된 촛대 등걸이 드립니다.

주문방법 : 전화, 팩스, 인터넷 주문
납품방법 : 신청장소로 직배, 택배 발송

의 장 등 록 : 98-27738
실용신안등록 : 98-23124

주문 전화 : 02-732-1522 / 737- 8881(대표)
주문 팩스 : 02-737-0697
인터넷 주문 : (http://mall.buddhapia.co.kr)

우리모두 부처님 오신길을 깨끗이 합니다. 집안과 내집안길을 깨끗이 하고 도로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이는 대로 치웁시다.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발걸음을 산뜻하게 해드립니다. 만 중생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 재세시에 흙탕길을 걷는 머리카락을 잡아 연등부처님께 공경을 표했습니다. 우리모두는 부처님을 사랑합니다. 나무 사이바사 석가모니불